

한국디자인사 연구의 문화사적 접근을 향하여
- 양감조 할머니의 규방 공예품을 위한 변론 -

Toward the Cultural Approach to the Discipline of Korean Design History:
- A Plea for the Domestic Handcrafts of Yang, Gap-Jo -

주저자 : 고영란 (Ko, Young-lan)

한성대학교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

본 연구는 한국디자인학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디자인연구 전문위원회의 사업으로 기획되었으며,
학술진흥재단의 콜로키엄 연구비지원으로 진행되었음

1. 서 론

2. 대안적 역사 서술방식과 새로운 문화적 역사

3. 문화사적 시각으로 양갑조 할머니의 규방 공예품 읽기

- 3.1. 두껍게 읽기
 - 3.1.1. 유연성
 - 3.1.2. 창의성
- 3.2. 다르게 읽기
 - 3.2.1. 지속성
 - 3.2.2. 정체성
 - 3.2.3. 과정성
- 3.3. 작은 것을 통해 읽기
 - 3.3.1. 감수성
 - 3.3.2. 기능성
- 3.4. 깨뜨리기
 - 3.4.1. 공생성
 - 3.4.2. 호혜성

4. 결 론

참고문헌

(要約)

한국 디자인사의 일반적 접근 경향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근대화 문제와 관련된 거대 담론에 주로 연구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근대화 논의에는,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자장 안에서 전개되는 공적, 제도적, 권력적 근대화 외에 일상적인 삶의 양식으로 발현되는 사적, 개인적, 문화적 근대화라는 두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특히, 현실사회주의의 실패 이후 후자의 관점이 역사학계를 비롯한 제 분야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디자인 역사 연구자들의 근대적 디자인 현상에 대한 역사 인식은 일상적 현실 안에 존재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이기보다는 현실 밖

에 담론의 차원으로 존재하는 '위로부터의 역사'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엘리트 중심의 역사인식 틀에 균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자발적인 디자인 행위로 구현된 일상적 삶의 표상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한국 디자인의 역사를 일상 문화적인 시각을 통해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접근방법은 지순한 한국 어머니 상의 전형인 올해 87세의 양갑조 할머니가 일생동안 제작해 온 규방 공예품을 문화사적 시각으로 읽어내는 일이다. 한국 디자인사의 거시적 담론 속에 묻혀버린 민초들의 일상적인 삶의 궤적들에 대한 역사적 반추 작업을 통해 작지만 다층적인 한국 디자인의 의미소들을 발굴해냄으로써 문화사로서의 한국 디자인의 역사적 전망을 가늠해 보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general tendency of approach to Korean Design History has been focusing its primary interest on the grand story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modernization in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aspects of Korea. In the discourse of modernization, however, there are two sides immanent in the modernization: there is the formal, institutional and authoritative modernization developed inside the capitalistic mode of production and the informal, individual and cultural modernization manifested in the mode of everyday lives. Especially, despite the viewpoint of the latter being emboss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in various areas including the academic world of history since the collapse of socialism, the historical recognition of the phenomena of modern design by the Korean design historians is more like the 'history from the above' that exists at the level of the discourse outside the reality rather than the 'history from the below' that exists within the ordinary life.

To grant a sense of balance in such frame of historical understanding, it requires the restructuring the design history of Korea through the cultural perspectives from having the representation of mundane lives realized by the voluntary design activity of the common people as research subjects. One of the methods to acquire an answer to such problem is decoding, in the manner of 'cultural history,' the life-long domestic artifact made by Madame Yang, Gap Jo (currently 87 years of age) who is a model of typical Korean mother. Through the historical rumination on the traces of unpretentious lives of the people that has been buried under the grand narrative of the Korean Design History, a new era aimed for the historical prospect of Korean design as cultural history will be possible by excavating the petit yet multi-layered meaning of Korean designs.

(Keyword)

Cultural History, Micro-History, Design History of Korea

1. 서론

요즘 역사학계에서 '문화사(cultural history)'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사가 등장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세기 최대의 역사학적 업적이라고 평가되는 '사회사'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결과이지만, 그 시점이 대체로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이 가져온 거대 이데올로기의 종언, 가부장적 권력구조를 침식하는 페미니즘적 시선,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지구 차원에서의 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뉴미디어가 부쩍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는 시기와 중첩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역사 인식들의 문화사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요청임을 알 수 있다. 디자인사학계도 역사학계의 이러한 인식론적 지각변동에 초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문화연구(cultural studies), 물질문화(material culture), 대중문화(popular culture), 또는 하위문화(sub-culture) 등 다양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디자인 역사관찬 분야에 접목시킴으로써 디자인사학계에 문화 관련 연구풍토를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화사적 접근방식이 구미의 디자인사 연구를 비롯한 제 학문 분야에서 현상을 인식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디자인사 관련 연구의 경우, 역사를 보는 시선이 아직은 거대담론의 시각에 종종 머물러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디자인사학자들의 근현대 디자인 현상에 대한 역사적 인식망은 일상생활 속에 뿌리를 둔 '아래로부터의 역사'이기보다는 식민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근대화 논쟁에서 예견할 수 있듯이, 정치, 사회적 담론의 차원에서 조망하는 '위로로부터의 역사'에 주로 관심을 집중시켜 온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근대성 논의에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자장 안에서 전개되는 제도적, 사회적, 권력적 근대화와 함께 근대성이 일상적 삶에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일상적, 개인적, 문화적 근대화라는 두 측면이 내재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

문제는 환원주의적 역사 방법론과 그것이 기초하는 역사 결정론적 사관이다. 역사가 그 무엇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환원주의 내지는 결정주의가 발산하는 완전함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자발적인 디자인 행위로 구현된 구체적 삶의 표상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한국디자인의사를 일상 문화적인 시각을 통해 아래로부터 재구성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전체적 역사(total history)'를 구현한다는 이상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명인사 개인의 역사를 통해 역사 전체를 조망하는 미시사(micro-history)"²⁾적 연구방법이 특히 유용하다. 미시사적 접근은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중심의 주류 역사관찬 과정에서 소외된 개인들의 작은 이야기를 복합적 그물망으로 되살려내어 그것이 한국 디자인의 전체 역사에 작용하는 방식에 관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대안적 역사 서술방식과 새로운 문화적 역사

19세기에 들어서서 역사학은 원 사료에 대한 엄밀성을 강조함으로써 과학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과학적 역사연구의 일차

1) 김기봉, "단단한' 근대와 '부드러운' 근대: 한국 근대화의 역사를 보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비평적 성찰," 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 창간호, 푸른숲, 2000, pp. 141-70.

2) 조한욱, 문화로 보던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p.12

적 대상을 국가로 지목하면서 각 국가의 정치와 외교의 역사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었으며, 이런 관행은 사회사의 도전을 받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사회사의 등장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정치적 사건이나 정치적 지배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기존의 정치사적 서술방식에 의해 배제된 대다수의 민중들의 목소리를 역사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30년도에 출현한 아날학파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출현한 일단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에 의해 주창된 사회사는 역사연구의 대상을 민중으로 확대하였다. 그들은 정치 권력자나 정치제도 보다 노동자나 여성 등 역사 속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했던 평범한 계층의 사회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사회사의 단점이 드러나면서 마르크스주의와 아날학파에게 비판이 제기 되었다. 역사의 모든 현상을 경제적 결정론으로 환원시켜 계급투쟁이라는 기본 구조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문화적 방식(상부구조)이 물질적 경험(토대)에 미치는 자율적 효과에 주목하는 일단의 역사가들에 의해 이론적 균열을 가져왔다. 상부구조는 토대에 의해 결정된다는 종래의 마르크스 이론은 새로운 역사적 인식 틀로 무장한 문화사에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한편 대중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사를 물질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했던 아날학파의 초기 연구는 지나치게 통계적 방법에 의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질적인 분석에 의해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는 특정 사회집단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는 공동체적 가치관이나 정신적 태도를 지시하는 '망탈리테(mentalité)'라는 개념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아날학파 내부에서 문화사적 전환이 시작되었다.³⁾ 문화사적 시각의 역사 읽기는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 등 종전과 다른 해체주의적 역사인식 방법을 통해 역사서술의 중심점을 다변화시킴으로써 더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그 역사를 바라볼 것을 주문한다. '작은 것'과 '낮은 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문화사는 이전까지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일상생활에 스며있는 문화적 의미를 찾아내어 인간 실존의 다양성에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역사에서 소외된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의 몫을 되돌려 줌으로써 좀 더 건강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성찰적 세계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문화사의 목적은 정치사, 사회사, 경제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사는 오히려 사회사의 한계를 감싸 안으면서 사회사의 이념을 계승발전 시켜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대안적 역사 담론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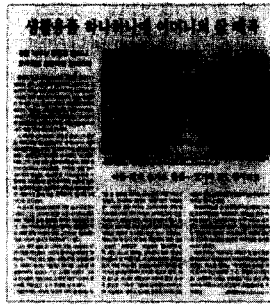
3. 문화사적 시각으로 양감조 할머니의 규방 공예품 읽기

한국 디자인사의 문화사적 접근 사례로 올해 87세의 양감조 할머니가 결혼 70주년 기념 전시회 [그림1]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규방 공예품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한국디자인사의 거시적 담론 속에 묻혀버린 민초들의 일상적인 삶의 궤적들 - 이 경우, 한 솜씨 좋은 할머니가 10세(1927년)부터 현재에 이

3) "망탈리테란 지리나 기후와 같은 장기지속적인 조건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집단적인 사고방식, 생활습관 같은 것을 의미한다." *ibid.*, p.39.

르기까지 근 80년 동안 담담하게 제작해 온 규방 공예품들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탐색 작업을 통해 작지만 다차원적인 한국 디자인의 의미소를 발견해냄으로써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문화사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자신의 의지 바깥에 존재하는 가부장제도와 같은 사회구조가 보통사람의 일상적인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물을 물신화시키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에 못잖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전자의 측면만을 확대해석할 때 인간이 역사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극소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럴



[그림1] 류근필, 양갑조 결혼 70주년 기념 전시회 관련 기사. 조선일보 2004.06.21.

경우 인간을 다루는 역사가 인간을 소외시키는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역사가 인간에게 미치는 힘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간이 역사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즉 인간과 역사에 대한 상호균형 있는 전체적 시각을 견지하려는 태도가 결국 문화사적 접근방법의 출발점이자 전제가 된다.

양갑조 할머니가 가사를 돌본 후 남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수행하듯 평생을 만들어 온 바늘 삼, 골무, 상보, 모시조각 저고리 등의 섬유 공예품을 문화사적 시각으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돌보기로 확대해서 들여다보듯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망원경을 통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중층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할머니의 규방 공예품이 지닌 한국 디자인의 역사적 텍스트로서의 가치를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 '깨뜨리기'라는 다양한 문화사적 분석틀을 통해 해석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문화적 접점을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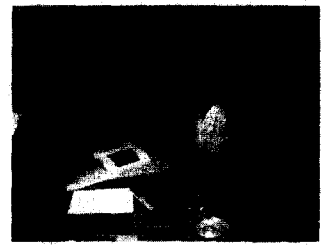
3.1. 두껍게 읽기

'두껍게 읽기'란 자연과학과 대비되는 인문과학의 글 읽기에 전제가 되는 방법으로서 자연과학은 물체와 관련된 외형적, 객관적 사실을 묘사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인문과학에서는 물리적 묘사보다는 그것에 담겨있는 다양한 의미의 층위를 다룬다. 묘사 대상은 같을 지라도 묘사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⁴⁾ 두껍게 읽은 한국 디자인 관련 역사적 자료는 역사에서 객관적 사실만을 확인하려던 종래의 과학적 역사와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양갑조 할머니의 규방공예품이 지닌 역사적 텍스트를 두껍게 읽기 위해서는 할머니가 만들어 낸 오브제를 분석하는 한편 할머니와의 구두 인터뷰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그림2). 공식적 디자인사에서 소외된 여성들이 가족 이데올로기에 충실하게 봉사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물을 창조해냈는가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한국 디자인사를

주체적으로 서술하는 데 있어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래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으며, 기록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담론을 소유한 기득권층에 의한 왜곡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어찌든 민초들의 입장에서 기록을 남기는 경



[그림2] 양갑조 할머니와 아들 유동수 기장과의 구두 인터뷰, 2004.09.08

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평범한 사람들의 구술 텍스트는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결핍들로 인식되고 있는 사료의 부족함을 일정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이너와의 구두 인터뷰 내용의 기록은 특히 의미가 있다. 양갑조 할머니와의 구두 인터뷰를 통하여 한국 여인네들의 규방공예품이 우리나라의 다른 생활문화 보다도 더 밀도 있게 이른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할 만한 집단적 기억 혹은 '망탈리테'를 배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우리나라 규방공예의 문화적 정체성이 일반적 문화에 맥이 닿아 있는 보편적 컨셉임을 재발견함으로써 규방 공예의 미학 및 그 역사성을 한국의 주류 디자인의 역사에 편입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3.1.1. 유연성

양갑조 할머니와의 인터뷰 내용 중 옷을 만드는 유일한 공식이 바느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바풀로 천을 붙이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다. 고름, 어깨선 같이 힘을 받는 부분만



[그림3] 도포(예복), 시계절용, 길포 1934(17세)

한 천을 바풀로 붙인 후 인두질로 마감하는 방식이다. 바풀로 붙이는 경우, 바느질하는 것보다 더 매끈한 마감효과를 더 빠르게 얻게 되므로 시간적, 미적인 측면에서 이익일 뿐만 아니라 물에 적시면 솔기가 해체되므로 세탁을 위해 일일이 솔기를 뜯을 필요가 없다. 예복용 도포 같이 갈끔한 매무새의 의복을 짓는 방법으로는 실용적, 경제적인 면에서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다(그림3).

양갑조 할머니의 경험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바풀로 붙인 한복의 솔기가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솔기를 바풀로 붙이는 과격적 사고를 통해 우리나라 규방공예의 유연한 문제해결 능력을 엿볼 수 있다. 남성 위주의 공공사회영역에서의 유교문화가 지향하는 대의명분을 따르는 추상적 사고방식에 비해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가정영역과 일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규방 공예는 실용주의의 온상이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기능주의를 실천하는 장이었다.

4) 클리포드 기어츠(Cliford Geertz)의 "두꺼운 묘사(thick description)"로부터 유래된 개념이다. bid., pp.12-3.

3.1.2. 창의성

만일 우리나라 규방공예가 지니는 일반적 성격으로 양감조 할머니의 작품을 설명하려 든다면 그것은 환원론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격이 될 것이다. 규방공예의 일반적 속성 속에서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양감조 개인의 독자성을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면 인문학으로서의 역사학의 정체성은 확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담으로 양감조 할머니의 모시조각저고리가 보여주는 것 같은 할머니의 창의적 디자인 능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그림6]. 규방 공예의 대중적 형식으로 전래된 버나클러한 조각보 양식과 양감조 할머니의 실용주의적 발상이 만나서 개량한복 형 조각저고리로 진화한 것이다. 할머니는 명을 달리한 친지들이 생전에 입었던 옷들을 태워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조각천을 만들어 조각 저고리로 환생시키는 유희의 디자인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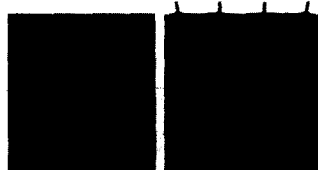
[그림6] 모시 조각저고리, 1999(82세)

3.2. 다르게 읽기

‘다르게 읽기’란 역사학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던 승리자 중심의 역사 서술방법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담론을 소유한 자 위주의 역사 편찬이 이루어져 왔던 기존의 역사학은 결과적으로 체제를 미화시키는 일에 가담해 온 것이 사실이다.6) 기존의 산업디자인 중심의 역사서술의 관행과 다르게 디자인의 역사를 읽는다면 지금까지의 한국디자인사의 관점은 수정되어야 할지 모른다. 우리나라 디자인의 역사 속에 규방 공예의 영역을 영입시킴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위험성은 건강한 인식에 기초해야 할 역사적 시각이 낭만적 도피주의의 덫에 빠지는 일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역사를 산업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로 국한시키기에는 디자인이 함의하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 풍부하다. 한국 디자인사를 특정 주제에 한정시키기 보다는 역사의 창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열어 놓음으로써 역사 앞에서 누구나 평등할 수 있을 것이다.

3.2.1. 지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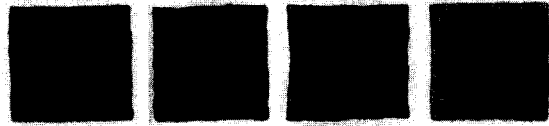
양감조 할머니는 평생 수없이 많은 조각보를 만들어 왔다. 사실 조각보는 한국 여인들에게 있어 시간적 변화에서 벗어난 탈시간적 모티프이다. 구전 전통에 속하는 민담이 언어적 텍스트라면 조각보는 소위 민화라고 일컬어지는 과거의 풍속에서 그림들처럼 시각적 텍스트라는 점에서 구별이 될 뿐 둘은 모두 신화적 시간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실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적 기억 속에 살아 있음으로써 언제라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선형적 생각이나 사물의 형태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생활전통이라는 지



[그림7] 양감조 할머니의 조각보 디자인 (부분, 좌)과 '비움'의 디자인(부분, 우)

5) 조한옥, pp.13-4.

속성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 따라서 조각보의 시제는 과거형이나 현재형이 아닌 초역사적인 시제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7]. 결국 양감조 할머니의 조각보는 한국 디자인의 잠재적이고 장기지속적인 ‘망탈리테’의 대리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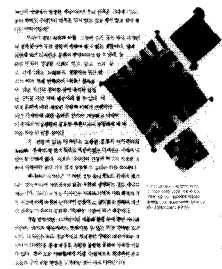


[그림8] 한국 디자인의 ‘망탈리테’의 표상으로서의 양감조 할머니의 조각보 디자인

3.2.2.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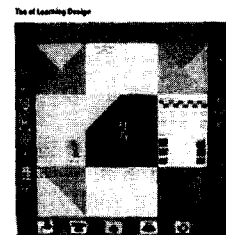
조각보가 한국의 문화적 ‘망탈리테’의 소산이라면 조각보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아이덴티티가 발현된 디자인 결과물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교재용으로 출간된 디자인 책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그림9]:

... 디자인이 서양에서 발생한 개념이라면 우리 민족은 근대에 이르는 동안 한번도 우리만의 의복을 입지 않고 짐도 짓지 않고 살아 왔다는 이야기일까? 인간이 만든 의복과 이불, 그릇과 수저 등은 바로 디자인의 결과물이며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들이다. 문화란 민족이 생성된 이래로 먹고, 입고, 쓰고, 듣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생활하는 모든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지적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디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고 디자인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정당하게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6)



[그림9] 한국미술연구소, 디자인? 디자인-디자인 쉽게 이해하기, 1997, p.14.

조각보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디자인으로 대내외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터디자인 ‘99 서울 워크숍의 교육팀이 제안한 프레젠테이션 형식에서도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당시 교육팀은 차별화된 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위해 조각보 이미지를 프레젠테이션 보드도 활용하였다. 조각보 보드를 통해 현재 한국 산업디자인 교육의 비전을 우리나라 조각보 디자인의 탈-이원적, 가변적, 생태적, 심미적 ‘망탈리테’의 회복과 연결시키려는 문화적인 시도를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그림10] 조각보 프레젠테이션 보드, 인터디자인'99 서울 워크숍

6) 한국미술연구소, 디자인? 디자인, 시공사, 1997, p.13-4.

3.2.3. 과정성

3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전통 자수와 보자기를 수집해 온 허동화 한국자수박물관장은 “자투리 천을 손바느질로 이어 만든 조각보는 세계에 유래가 없는 우리 어머니들만의 문화유산”임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이름 없는 우리 할머니, 누이들의 손을 거쳐 이어져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각보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대표적 도상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는 실용과 예술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우리 규방문화를 이젠 정부와 사회가 나서서 지켜 주기를 요청하는 가운데 특히 보자기 사용은 1회용 포장지의 대안문화란 점에서 환경운동으로 확대되어 정착되기를 원하고 있다. 허 관장이 우리의 규방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해외에서 40여 가졌던 조각보와 자수보자기 전시 경험에 의거한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에선 한 회에 30만명 관람객이 몰려들 만큼 성황을 이루지요. 서구적 관점이겠지만, 그들은 우리 조각보의 면구성과 색 배합이 현대 추상화의 결과에 비견된다고들 평합니다. 우리가 ‘레핑 클로스(wrapping cloth)’가 아니라 ‘보자기(bojagi)’라고 표기해도 일반명사로 받아들일 만큼 한국 보자기의 진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⁷⁾

서구인들이 조각보에서 느끼는 감동은 조각보의 형식미가 암시하는 신조형주의의 형식주의적 조형성 그 이상은 아닐 지 모른다. 하지만 조각보의 진정한 미학은 ‘서피스(surface) 디자인’ 이상의 그 무엇이다. 양감조 할머니가 만드는 일체의 조각보나 조각저고리는 모두 재활용한 천으로 만든 작품이다. 다른 옷을 만들고 남은 천 조각, 남들이 버리는 자투리 천, 아예 한복집에 부탁해서 여름철에 적삼을 만들고 남은 모시를 버리지 말고 모아 달라고 가을철에 얻어 온 모시 조각을 조각조각 이어서 만든 결과물들이다.⁸⁾ 할머니는 심지어 어지간해서는 버리는 한복의 깃이나 고름 같은 작은 천 조각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서 조각보나 조각적삼 등을 만들어서 잘 만들어진 것은 남들에게 주고, 남은 것은 자신이 입는다고 한다. 따라서 양감조 할머니가 만든 수공예품에 등장하는 천의 재질이나 색채는 사전에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현대미술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발견된 물건(found object)’이라고 해석된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의 조건에 순응하면서, 세상이 자신에게 부여한 한계 안에서, 그러나 자신 내부의 조형감각이 시키는 대로 천의 형태, 색채, 재질감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 조율, 구성함으로써 제3의 가치를 창조하는 과정미학이 조각보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다.

3.3. 작은 것을 통해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는 새로운 문화적 역사를 위한 또 다른 접근방식이다. 지금까지 역사의 중심이 되어 왔던 위대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⁹⁾ 문화사 중에서도 특히 미시사적 방법론은 미세한 텍스트를 통해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시적인

역사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비견된다. 비록 양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사료라고 할지라도 역사를 폭넓고 깊게 읽을 줄 아는 연구자의 창의적 시각이 뒷받침된다면 풍요로운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3.1. 김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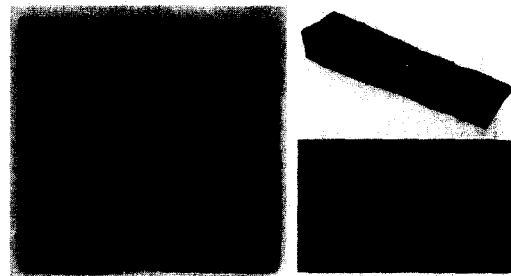
늘 보아왔으므로 그 의미를 인지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던 평범한 사물 속에 숨겨진 한국의 여염집 여인네들의 보편적 ‘망탈리테’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건으로 촉발된 의도적인 이데올로기 보다 더 잠재적이고 장기지속적인 한국 문화의 원형질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역사의 초점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바뀌어야 한다는 미시사적 주장은 정당하다. 양감조 할머니가 14세 때 상보에 꿈꿨던 꽃수나 눈이 침침해져서 조금 거칠게 수놓은 86세 때 만든 수저집에 등장하는 꽃에서 표현되는 한국의 규방공예가 담고 있는 미적 감수성은 72년의 시간차를 단숨에 넘어서서 한국문화의 보편적 ‘망탈리테’를 드러내 놓고 있다(그림11,좌,우/상).

‘꽃수’를 통해 표상된 우리나라 여인들이 지닌 장식적 감수성은 비단 규방 공예라는 장르 내에서만 통용되는 박제된 조형의식은 아니다. 규방 공예의 하나의 장르로 정형화 된 ‘꽃수’라는 코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미적 감수성에도 영향을 미쳐 지금 여기 우리들 곁에 도상학적 데자부로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쌈지의 초대장 형식 및 그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감조 할머니가 평생 만들어 온 규방공예의 디자인사적 위상을 회복하는 데 유의미한 단서로 작용할 수 있다(그림11,우/하).

꽃담 ‘꽃이 피었습니다’.

낮은 울타리 안의 작게 피어있는 꽃.....

낮은 울타리 안의 집집마다 용기종기 모인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정겨움은 쌈지의 정성스런 주머니 안에 담겨진 작은 삶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토탈 패션 브랜드 쌈지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한 땀 한 땀 ‘수놓기’처럼 손 맛이 느껴지는 정성스러움과 꼼꼼함, 자연스러운 소재와 표현으로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쌈지의 오랜 디자인 감성을 질게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은은하게 들려오는 먼 풍경소리처럼 가슴깊이 따스한 느낌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곳, 쌈지에 당신을 모십니다.¹⁰⁾



[그림11] 양감조 할머니의 꽃수 상보, 1931(14세,좌), (주)쌈지의 전시초대장 디자인(2000, 우/하), 양감조 할머니의 수저집, 2003(86세,우/상)

7) “보자기 예술성, 외국이 더 알아줘요.” 조선일보, 2004.10.06. A28.

8) 요즘엔 정통한복 보다 개량한복을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천 조각 구하기가 예전보다 어렵다고 한다.

9) 조한옥, pp.14-5.

10) 아셈III 한국개최기념 특별전시회를 위한 (주)쌈지 초대장 내용 중, 2000.10.22-29.

규방공예의 형식적 특징 중에 하나는 두드러진 장식성이다. 미니멀한 스타일의 엘리트 디자인과 되도록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련된 취향을 의도적으로 비껴가는 듯 보이는 싹지 디자인이 추구하는 정신이, 흔히 생각하듯, 노스텔지어나 키치가 아니라 정성이 느껴지는 지수를 통해 드러나는 규방 문화의 장식적 감수성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인의 역사에서 장식이 항상 미덕으로 인식되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장식성에 병리학적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것이 사실이며, 모더니즘이 확장됨에 따라 장식성은 이단시되었다. 아돌프 루스에게 있어서는 장식은 퇴보와 타락의 징표이자 심지어 최악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장식을 향한 충동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인류의 문화 진화사에서 그 초기 단계부터 계속해서 이월된 것”¹¹⁾이었으므로 루스는 문명이 진보하려면 무분별한 장식 충동을 억제하고 장식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사에서 장식성을 영원히 퇴출시키지는 못했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 이후 장식은 잉여적, 퇴행적 혐의에서 벗어나 색채 및 재질감과 함께 디자인의 중요한 문법의 하나로 복권되었다. 프로이드식으로 말하자면 장식성은 억압된 것의 귀환과 관련된 하나의 징후로 볼 수 있다. 규방 공예에서 드러나는 장식성의 표현은 남성과 달리 사회활동이 제한된 여성들이 장식적 에너지의 분출을 통해서 자신들의 억눌린 자아를 여성의 영역으로 허락된 가정영역에서 실현하는 방편으로 해석된다. 데리다는 특히 칸트를 재해석하는 가운데 장식물이나 부가물을 뜻하는 파레르곤(parergon)과 본 작품을 의미하는 에르곤(ergon)의 개념을 차용하여 장식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칸트와 데리다는 장식물로서의 <파레르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작품의 바깥에 있지만 오히려 작품 그 자체와 보충대리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파레르곤은 에르곤의 바깥에 있지만 즉 에르곤의 입장에서 보면 덩어지만, 그 덩어리는 에르곤의 내면세계에 그만큼 끼어들고 한계 자체를 압박하고 마찰하고 스치고 거기에 이웃하고 같이 놀이를 한다. . . . 그러므로 <안/밖>이나 <본질/우연>이나 <실체/수식>의 준별은 무의미하다.¹³⁾

기호학의 대전제인 기표와 기의, 형식과 내용의 이분법적 구조 체계를 타파하는 해체주의는 칸트의 무목적성(disinterestedness)의 미학을 상기시킨다. 기의에 선행하는 기표의 존재방식을 인정하는 칸트와 데리다의 탈이원성과 규방 공예품의 파레르그낯한 세계에 각인된 우주적 질서 사이에 유사성이 엿보인다. 양감조 할머니의 미세한 화훼의 파레르그 낯한 자태에서 발현되는 ‘기’의 총만함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무목적성에 경의를 표하는 우리나라 규방공예의 관조의 미학을 발견할 수 있다.

할머니의 화훼 지수품과 싹지의 디자인 모티프 및 그 컨셉은 우리나라 여인들이 면면히 지켜내려 왔던 규방공예품이 한

국 디자인사 및 세계 디자인사에서 마땅히 차지하여야 할 위상과 그것이 파생하는 논점들을 다층적이고 중첩적으로 환기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3.3.2. 기능성

흔히 양복은 입체적으로 재단을 하고, 한복은 평면재단을 하기 때문에 양복이 한복보다 더 인체에 부합하는 소위 인간공학적 디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남자한복바지의 재단의 원리를 메비우스의 띠의 원리로 설명하는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반대를 주장하는 흥미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그림5):



[그림5] 흙바지, 추수용, 옥양목, 1934(17세)

남자한복바지는 전통복으로 서양보다 수 백년 전에 수학적 원리인 뫼비우스 띠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여 이 띠를 실용화하였으며, 남자한복바지를 좌식 생활에 편안하고 여러 체형에 까다롭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함과 풍성한 여유 있는 일상복으로 구성시켰다. 또한 인체의 어느 부위보다 운동량이 큰 하체에 착용되는 바지는 구성 자체로 볼 때 앞뒤 중심에 사선으로 이루어진 큰 사복과 작은 사복이 있어 자세 및 동작에 순응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농경생활을 주업으로 했던 시대의 노동복으로도 착용되었다.¹⁴⁾

실제로는 서양바지는 겉면과 안면의 옷감을 서로 마주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면을 포개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차원적 평면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반면에 평면을 비틀어 삼차원적인 공간을 만드는 남자한복바지의 사복 부분은 뫼비우스 띠의 삼차원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재단함으로써 양복바지보다 더 입체적 재단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남자한복바지를 최초로 디자인한 사람은 양감조 할머니는 아니다. 할머니는 단지 한복이라는 버나클러 디자인을 전수하여 재생산한 수많은 역사적 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디자인사 속에서 차지할 규방공예의 정당한 몫은 양감조 할머니에게 돌아갈 개인의 몫이 아니라, 할머니의 규방 공예품을 통해 발현되는 한국의 대다수의 평범한 여인들이 일상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과 그 콘텐츠가 마땅히 차지하여야 하는 역사의 정당한 몫일 터이다.

3.4. 깨뜨리기

‘두껍게 읽기,’ ‘다르게 읽기,’ ‘작은 것을 통해 읽기’는 결국 ‘깨뜨리기’로 수렴된다. ‘깨뜨리기’는 궁극적으로 기존의 역사학의 정형화된 틀을 해체시키는 작업이다.¹⁵⁾ 이는 단지 부정을 위한 파괴가 아니라 제도권 역사학이 견지해 왔던 역사 이해의 폭과 그 서술방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성찰하여 우리나라 디자인의 역사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고 폭넓게 인식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는 노력인 것이다.

11) Stuart Ewen,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소비사회와 스타일의 문화 정치학, 시강과 언어, 1996, p.166.

12) 루스는 장식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부류에 미개인, 범죄자, 유아, 퇴폐적인 귀족계급 등을 포함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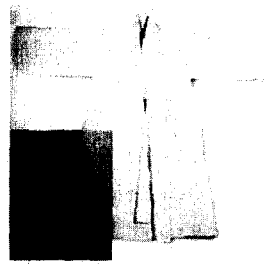
13) 김형호, 데리다와 노자의 독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p.126.

14) 김은정, 남자한복바지 구성에 관한 연구, 과정사상과 동아시아 문화, 제5회 화이트헤드 국제학술대회, 2004.5.

15) 조한욱, p.15.

3.4.1. 공생성

양갑조 할머니가 37세(1954년) 때 만든 남자 한복 중에 일견 걸감과 안감이 뒤바뀐 것같이 보이는 작품이 있다. 옥양목으로 만든 걸감과 대조적으로 할머니가 손수 짠 비단으로 안감을 댄 겨울용 겹두루마기가 그것이다(그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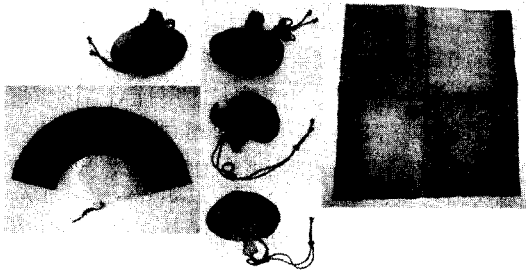


[그림4] 겨울용 겹 두루마기, 갈:옥양목(전체), 안:비단(부분), 1954(37세)

마치 안보다 겉에 좋은 감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한 오늘날의 허위적 사고방식에 허를 찌르기라도 하듯이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비단을 걸감으로 사용하지 않고 안감에 사용함으로써 안과 밖의 위계적 이분법에 대한 과감한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 그 이유를 양갑조 할머니는 번들거리는 비단이 겉으로 드러나 남에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 지는 것을 꺼려하는 당시 우리나라 문화의 보편적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한다.¹⁶⁾ 비단이 주는 풍요로운 속성을 향유는 하되 물질의 소유 자체에 대한 과시는 경계함으로써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하기 위해 속물적 취향을 윤리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농경문화 속에서 공동체적 삶을 구가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도덕적 및 심미적 지혜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3.4.2. 호혜성

양갑조 할머니는 인터뷰를 마치고 가실 때 준비해 온 자신의 최근 작품을 모두 선물로 주고 떠나셨다(그림12). 할머니는 자신이 온갖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이지만 그것을 품에 소유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하신다.



[그림12] 인터뷰를 끝낸 후 양갑조 할머니가 주신 선물, 2004.09.08

대담자: 할머니께서 이렇게 많은 수공예품을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전과 달리 오늘날은 일용품을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바늘을 손에서 놓지 않으신 까닭은 경제적 이익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 누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많이 만들어 놓으면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지요. 만들어 놓고 누가 예쁘다고 하면 다 줘버렸어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에게도 나눠 주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때, 받는 사람이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즐거움을 느끼지요.

아들: 지금까지 어머니는 어디에 팔거나 누구에게 보이려고만 드신 것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 가면서 최근까지

—2003년 2004년에도— 엄청나게 많이 만드셨어요. 집안에 손님 오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쁘다고 탐을 내면 골라가라고 하셨어요. 물론 손님에게 주는 것이니까 가장 잘 만든 것을 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좋은 작품은 모두 남들에게 주어 버렸기 때문에 현재 최상의 작품은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셈입니다.¹⁷⁾

산업디자인의 역사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 즉 거래를 하지 않는 규방 공예품은 사생아로 취급되어 왔다. 여인네들에 의해 가정에서 제작된 자수, 누비, 조각보, 의복 등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익추구를 위해서 거래되는 교환가치는 없으나 집에서 가족들에 의해서 사용됨으로써 사용가치가 우선시되는 규방 공예품들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디자인 역사에 의해 이제껏 외면당해 왔다.¹⁸⁾ 한국디자인사에 규방 공예를 영입시킨다는 것은 디자인의 역사는 곧 대량 생산의 역사라는 기본 명제에 대한 단순한 도전을 넘어 규방 공예품이 교환가치에 포위된 산업디자인의 역사적 한계를 월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데리다는 말년에 해체주의의 니힐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인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미래의 철학적 모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말년에 그를 사로잡았던 철학적 화두는 - 비록 올해 타계함으로써 그의 참신한 주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되기에는 절대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쉽지만- 호혜(hospitality) 사상 이었다:

대담자: 선생님의 최근 연구주제는 무엇입니까?

데리다: 타인을 자기 집에 맞이하고 대접하는 호혜(hospitality - 빈자와 여행객들에게 무료로 잠자리와 식사를 제공하는 자비를 뜻함 - 대담자 주)의 문제입니다.

대담자: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데리다: 이 문제는 외국인과 이방인, 이민자, 국제법, 영토권, 종교분쟁, 인종분쟁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¹⁹⁾

데리다가 애써 발견한 호혜 사상과 양갑조 할머니의 선물로 상징되는 규방공예의 '아낌없이 주는 삶'의 태도가 호혜성의 문제로 수렴된다는 발견은 자못 흥미롭다. 둘은 타인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호혜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류에 적 휴머니즘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휴머니티는 타자성의 수용으로부터 출발한다. 데리다의 호혜 철학과 할머니가 지향하는 배품으로 충만한 일상을 디자인 철학의 문제로 확장시켜 볼

17) Ibid.

18) 마르크스 경제이론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규방공예의 중요한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용가치는 사용하기 위해 생산되고 자기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에 의해 생산되는 물건들의 가치를 가리키는 반면, 교환가치는 교환하기 위해 생산되는 물건들을 가리킨다. 마르크스는 산업사회에서의 교환가치의 추구로 말미암아 모든 생산 활동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발전함으로써 참된 사용 가치를 지니는 생산을 방해하며 노동력의 대부분이 이익 추구를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경쟁이 경제의 토대가 되는 한 결코 디자인에 있어서 참된 가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대두로 인해 교환가치와 잉여가치에 의해 밀려난 규방공예를 마르크스적인 견지에서 해석하자면 사용가치를 지닌 일상성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한다.

19) 자크 데리다와 김성도 교수와의 대담, 조선일보, 1997.01.20. A9.

16) 양갑조 할머니와의 구두 인터뷰 내용, 2004.09.08.

때 소유로 환원되는 디자인의 현상성을 초월하여 타자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비의 삶을 실천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물론 규방 공예가 디자인의 모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묘약은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목격하게 되는 전 지구 차원의 계획적인 대량학살과 환경오염에 의한 생태계 파괴에 이르게 된 인류문명의 아킬레스건은 타자성의 억압을 통한 힘의 확장에 있다는 것은 작금의 일련의 세계적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디자인을 이성과 합리적 사고로 정복하려는 기계론적 진보관이 가져온 생태학적, 도덕적 테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국 디자인사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규방공예의 모성적 에너지를 주목하여 우리나라 디자인의 역사에서 휴머니즘적 가치를 증류시켜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의 역사 그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데, 결국 그 과업은 산업적 틀에 한정되어 있는 산업디자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구조를 해체할 잠재력을 보유한 규방 공예가 배태하고 있는 호혜성의 귀환을 통해 달성될 여지가 다분하다.²⁰⁾ 자신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시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양압조 할머니가 보여주는 자비가 체화된 일상적 배품의 미학은 주류 역사로부터 소외된 모성적 가치와 제도권 디자인으로부터 제외된 규방 공예를 오늘날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개척해야 할 미지의 영토로 남겨놓고 있다.

4. 결론

한국디자인사의 연구경향은 서구의 모델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주류 디자인사로서의 소위 식민지 학문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미의 전통적 역사인식의 정형화된 틀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역사 편찬 모델인 문화사를 한국 디자인사 연구에 접목시키는 시도는 물론 쉬운 작업만은 아니다. 열려진 접근만큼이나 일관된 틀이 부재한, 어쩌면 혼란스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학문적인 체계의 부재라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사는 한국 디자인사학이 처한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악용될 여지보다는 선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디자인사 편찬에 관한 한 주변국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디자인사 연구에 던져주는 인식론적 및 방법론적 비약 가능성은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원초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결정적인 결함으로 지적되는 자료 부족의 현실을 일정부분 극복할 수 있다. 문화사 중에서도 특히 미시사적 방법론은 미세한 텍스트(소우주)를 통해 그 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시적인 역사(대우주)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비견된다. 원래 평범한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희귀한 법이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담론

을 소유한 기득권층에 의한 왜곡된 자료일 가능성이 높으며, 자신들의 입장에서 기록을 남기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비록 양적으로 풍부하지 않은 사료라 할지라도 역사를 폭넓고 깊게 읽을 줄 아는 연구자의 창의적 시각이 뒷받침된다면 풍요로운 연구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한정된 그리고 소박한 식재료도 다양한 요리법에 의해 풍성한 식탁이 차려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사, 특히 미시사라는 연구방법론의 적용은 한국 디자인사 관련 메뉴를 다채롭게 만듦으로써 연구의 양과 깊이를 풍부하게 만든다.

둘째, 문화사가 상대적으로 최신 이론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론적 모형의 부재가 역으로 한국 디자인사 연구자들에게 학문적 평등성 및 자율성의 기회를 부여한다. 생산, 소비, 제도, 교육, 윤리, 전문성 등 기존의 공식적인 담론과 연관된 디자인 개념 및 그 역사를 보는 틀을 재수정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좀 더 총체적인 틀을 만들려는 문화사적 접근은 역사연구 결과물이 누적되어 있는 구미학계의 사학 전통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한국의 의제선점 개연성을 높임에 따라 디자인 역사 관련 담론의 생산자 입장에 서게 만든다.

셋째,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재해석하고자 하는 문화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다 학제적이므로 한국디자인사의 문화사적 접근은 결과적으로 한국 디자인사 연구의 다양성을 담보함으로써 학문적 지평을 넓힌다. 인류학, 사회학, 언어학, 심리학, 지리학, 철학, 문학, 한국학, 예술, 공예 등 인접 또는 근접 학문의 영역에서 이론 결실을 문화라는 그물망으로 건져내어 한국디자인사의 이론적 인프라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한국 디자인사 분야에서 조명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인접학문에 피드백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다학제적 지식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한다.

넷째, 한국디자인 관련 텍스트를 문화사적 시각으로 독해할 경우, 한국 디자인사 연구가 관련학문 공동체의 영역 내에서만 소통되는 자폐적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과의 소통을 꾀할 수 있다. 한국디자인사의 인식 틀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드리워진 식민지, 전쟁, 분단 등의 어두운 그림자 덕분에 과도하게 이념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일제 강점기라는 공식적 역사의 장 안에서도 민중들은 구체적인 일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전쟁의 와중에도 사람들은 주변생활에 의미를 부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한국디자인사가 평범한 대중들의 일상을 연구 영역으로 격상시킬 때 한국디자인사의 진정한 민주화가 달성될 전망이다.

20) 피터 도머(Peter Dormer)는 현대공예가 처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예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 즉 공예와 가정 간의 연결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Peter Dormer, "The Ideal World of Vermeer's Little Lacemaker," John Thackara (ed), *Design After Modernism*,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88, pp. 135-44를 참조할 것.

참고문헌

- 김기봉, "단단한' 근대와 '부드러운' 근대," 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 창간호, 푸른숲, 2000, pp. 141-70.
-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1999.
- 김은정, 남자한복바지 구성에 관한 연구, 과정사상과 동아시아 문화, 제5회 화이트헤드 국제학술대회, 2004.5.
- 김형호, 테리다와 노자의 독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 문화사학회, 역사와 문화, 창간호, 2000, 푸른숲.
- 박홍규,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개마고원, 1998.
- 조한욱, 문화로 보면 역사가 달라진다, 책세상, 2000.
- 한국미술연구소, 디자인? 디자인!, 시공사, 1997.
-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2권, 역사비평사, 1998.
- Dilton, Clive, "The State of Design History," Part I & II, Victor Margolin(ed.), Design Discours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pp. 213-50.
- Donovan, Josephine, 페미니즘 이론, 문예출판사, 1993.
- Dormer, Peter, "The Ideal World of Vermeer's Little Lacemaker," John Thackara (ed), Design After Modernism,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88, pp. 135-44.
- Ewen, Stuart, 이미지는 모든 것을 삼킨다: 소비사회와 스타일의 문화정치학, 시각과 언어, 1996.
- Walker John A., 디자인의 역사, 정진국 역, 까치, 1995.
- "보자기 예술성, 외국이 더 알아줘요," 조선일보, 2004.10.06. A28.
- "자크 테리다와 김성도 교수와의 대담," 조선일보, 1997.01.20. A9.